

2008년 금융환경 전망

전 기 석*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은 세계화 확산,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 저임금 노동력 공급 확대, 저축과잉 등 4대 요인을 기초로 1990년대 이후 “저물가, 고성장,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4대 요인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 세계경제는 최근 5년간의 저물가, 고성장 기조가 위협받는 가운데 성장률이 2007년(5.2%) 보다 낮은 4.8%로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성장률이 2007년 수준과 비슷한 2%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경제는 완만한 소비증가세와 수출증가세 둔화로 2007년보다 하락한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지역 경제는 수출과 투자 증가세 둔화로 2007년도의 2.5%보다 낮은 2.1% 수준으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2007년도의 11.5%에 이어 2008년에도 10%대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한국의 국내경제는 2007년 2/4분기 이후의 경기확장세의 연장선상에 놓여, GDP성장률이 5%선으로 2007년의 4.7%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둔화의 여파로 수출증가세는 다소 축소될 전망이나, 투자 및 소비 등 내수는 2007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국민총소득 증가, 가계흑자율 개선, 세계개편 효과 등과 같은 증가요인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는 고정투자 호조세에 힘입어 2008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자본재 수입 확대 추세와 가동률 호조 및 생산증가에 못 미치는 투자부족 여파로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주택투자가 위축되나, 정부주도 개발사업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거래는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리 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물가는 2008년도에 3.0% 상승할 전망이고, 고용여건은 서비스업에서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도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2007년의 3.3%에서 2008년의 3.2%로 감소되면서 미미하나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I. 국내외 금융환경 동향 및 전망

1.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은 세계화 확산,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 저임금 노동력 공급 확대, 저축과잉 등 4대 요인을 기초로 1990년대 이후 “저물가, 고성장,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4대 요인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 신흥국 임금 급등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으로 세계경제로의 저임금 노동력 공급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08년 세계경제는 최근 5년간의 저물가, 고성장 기조가 위협받는 가운데 성장률이 2007년(5.2%) 보다 낮은 4.8%로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성장률이 2007년 수준과 비슷한 2%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잠재성장률(3.0%)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기업 투자여력 확대로 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하는 반면, 주택경기 악화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악화로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나, 달러약세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로 금융완화 정책도 크게 달성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경제는 완만한 소비증가세와 수출증가세 둔화로 2007년(2.0%)보다 하락한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소비는 고용둔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회복이 부진할 것이며, 수출은 미국경제 악화와 중국의 감속성장 및 엔고 등으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유로지역 경제는 수출과 투자 증가세 둔화로 2007년도의 2.5%보다 낮은 2.1% 수준으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유로화 초강세와 미국경기 부진으로 유로경제의 성장축이었던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최저실업률을 기록하는 고용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2007년도의 11.5%에 이어 2008년에도 10%대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특수와 중서부지역 개발투자 확산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긴축여파 및 2008년 하반기 베이징올림픽 특수가 마무리되면서 경기과열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주요 지역별 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e)	2008년(e)
미국	3.1	2.9	1.9	1.9
일본	1.9	2.2	2.0	1.7
유로지역	1.5	2.8	2.5	2.1
중국	10.4	11.1	11.5	10.0

한편 국제금리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은 소폭 추가 금리인하, 유로지역과 일본은 당분간 금리인상 지연이 예상된다. 그리고 국제환율은 달러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그동안 절상폭이 작았던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국제금리 전망(국채 10년물 기준, 기간평균 금리)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미국	4.8	4.8	4.6	4.7	4.6
일본	1.7	1.7	1.7	1.7	1.9
유로지역	3.8	4.2	4.3	4.3	4.4

〈표 3〉 국제환율 전망(기간평균)

	2006년	2007년			2008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엔/달러	116	120	116	118	108
달러/유로	1.26	1.33	1.39	1.36	1.40

2. 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

2008년 국내경제는 2007년 2/4분기 이후의 경기확장세의 연장선상에 놓여, GDP성장률이 5%선으로 2007년의 4.7%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둔화의 여파로 수출증가세는 다소 축소될 전망이나, 투자 및 소비 등 내수는 2007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국민총소득 증가, 가계흑자율 개선, 세제개편 효과 등과 같은 증가요인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계의 부채 및 이자부담 증대와 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규제 강화로 급격한 소비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는 고정투자 호조세에 힘입어 2008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자본재 수입 확대 추세와 가동률 호조 및 생산증가에 못 미치는 투자부족 여파로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주택투자가 위축되나, 정부주도 개발사업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 등으로 민간부문 주택공급은 위축될 전망이나,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보여 공공건설 부문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거래는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리 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선진국 편중 탈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IT 및 조선 등의 주력수출제품 중심으로 비가격경쟁력 확보로 10%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교역증가세 약화로 수출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수입은 고유가 지속, 투자 및 소비 증가,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주요 국내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2006년	2007년(e)	2008년(e)
GDP성장률	5.0%	4.7%	5.0%
경상수지	61억 달러	36억 달러	-14억 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5%	3.0%
실업률	3.5%	3.3%	3.2%

물가 및 고용 측면을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는 2008년도에 3.0% 상승할 전망이고(2007년도는 2.4%), 고용여건은 서비스업에서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도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2007년의 3.3%에서 2008년의 3.2%로 감소되면서 미미하나마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II.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금 및 채권시장

국내금리는 2008년 중 5%대 중반 수준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완만한 경제 성장,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나, 세계 경제 둔화와 실질금리 상승의 한계 때문에 금리상승 폭은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의 정책기조도 긴축기조를 유지하며 경기확장세 유지를 전제로 한 소폭 금리인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의 수급여건을 살펴보면, 공급면에서 자금수요 증가로 민간채권 발행이 확대될 것이나 국채발행은 정부의 균형재정정책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의 수요면에서는 채권관련 상품에 자금유입 부진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단기 금리차는 금리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수급여건 호조로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용스프레드는 위험회피 성향 확대와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확대로 스프레드 확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2008년 지표금리 전망

(단기 3년물 기준, 기간평균,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국고채	4.8	5.0	5.4	5.2	5.6
회사채AA-	5.2	5.8	5.8	5.6	6.1

2. 외환시장

원/달러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로 절상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달러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유로지역 및 일본 등과의 금리차 축소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화의 절상 폭은 2008년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달러 과잉공급 완화로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격차 및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로 엔고가 심화되면서 원/엔환율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2008년 원화환율 전망

(기간평균,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원/달러	955	934	924	929	915
엔/달러	116	120	116	118	108

3. 주식시장

국내주가는 경기회복세 유지에 따른 기업수익성 개선으로 내재가치가 제고되고, 적립식펀드와 연기금 등 장기투자 자금의 증시유입 지속으로 상승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이 퇴조되고, 엔캐리 청산 우려와 같은 국제금융 불안요인이 증대되어 주가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표 7〉 2008년 주가지수 전망

(기간평균,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KOSPI	1,354	1,521	1,926	1,724	2,000

Ⅲ. 금융산업 전망

1. 은행

2008년 은행산업의 자산규모 및 당기순이익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자산건전성은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상승 기대로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수요 증가 및 저원가성예금 감소로 순이자마진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에 따른 이자자산 증가로 당기순이익 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시장 여건 악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업체의 부실 우려 등으로 자산건전성은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좀더 세부적으로 전망해 보면 2008년 은행의 이익성장 여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2008년에는 2007년과 달리 LG카드 매각과 같은 일과성 이익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007년에는 LG카드 등 출자전환 주식 매각이익이 크게 확대되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은행의 저금리성 예금이 증권사의 CMA로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바젤Ⅱ의 시행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리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순이자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수수료수익은 펀드수탁고의 지속적인 증가 및 방카슈랑스 확대에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어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은행산업 주요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e)	2008년(e)
순이자마진(NIM)	2.77	2.82	3.08	2.85	2.64	2.54
고정이하 여신비	2.75	1.97	1.28	0.90	0.76	0.87
수수료 수익	4.94	6.76	3.99	4.54	5.05	5.75
증가율	9.5	36.8	-41.0	14.0	13.8	13.9

자료: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우체국금융

최근 민영금융기관의 급속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국영인 우체국금융은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도서벽지 및 군이나 읍과 같은 군소지역에 예금과 보험의 금융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자산은 2006년 말 현재 20조 7,929억원이며, 2006년에는 2005년에 지급되었던 저축성 만기보험금의 지급이 마무리되고, 에버리치 복지보험 및 하이커버 건강보험과 같은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따른 보험사업 내실화와 보험수지 개선, 자산운용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2006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민영생명보험과 농협공제를 포함한 전체 보험자산 규모 중 우체국보험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영생명보험사가 86.1% 그리고 농협공제가 7.2%를 차지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은 2007년부터 신계약에 대한 정산계약고 도입으로 다소 주춤하였던 저축성보험의 증가와 자산운용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1~2조원의 자산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우체국예금의 자산은 2006년 말 현재 38조 4,479억원이며, 웰빙우대저축예금 및 가족다사랑적금과 같은 새로운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수익 증가로 2005년도에 비해 5.1%의 자산증가율을 보였다. 2006년도 말에 우체국 금융시스템이 대전의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이 완료되어 세계 정상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우체국금융은 전체 1,000여만명의 고객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민영은행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게 되어 우체국금융 사업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브랜드인 EVERRICH는 누구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데 우체국금융이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 기본 뜻이 담겨있어 새로운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해 통합 및 부문별 리스크 한도를 관리하고, 신BIS 제도에 대응한 운영리스크 도입 및 수익을 고려한 성과평과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라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는다면 우체국금융의 업적은 더욱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우체국 예금 및 보험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우체국예금(평잔)	300,568	332,507	354,882	365,915	384,479
우체국보험(말잔)	195,766	212,959	228,973	200,905	207,929
합계	496,356	545,466	583,855	566,820	592,408

〈표 10〉 우체국 전자금융이용 추이

(단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자금융	15.3	31.3	50.8	59.5	63.8
폰뱅킹	2.0	3.9	5.8	6.4	7.1
인터넷뱅킹	0.9	2.1	5.1	8.4	7.6
CD/ATM	12.4	25.3	39.9	44.7	49.1
창구텔러	84.7	66.7	49.2	40.5	36.2

3. 증권·자산운용

2008년 증권산업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성장세 지속, 증권사간 M&A나 신규설립 등으로 인한 대형증권사 또는 특화증권사 출현, 금융투자업무 확대에 따른 수익구조의 다변화 등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건전성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안한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 평가시스템 도입 등 감독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및 자산운용 업계는 신규설립과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보호,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장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노력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브로커리지 부문은 낮아진 회전율에도 불구하고 지수상승을 동반한 거래대금의 증가세로 증권사의 안정적 수익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호조에 따른 유상증자 증대, 생보상장 및 현대건설 등 주요기업의 M&A 예정으로 투자은행 부문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의 지속적인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증권사의

수익증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증권사 수탁수수료 및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e)	2008년(e)
수탁수수료	36,093	31,234	46,934	46,001	56,380	64,800
증가율	-13.9	-13.5	50.3	-2.0	23.0	15.0
당기순이익	1,953	8,656	24,812	29,655	40,460	50,500
증가율	-336.4	343.2	186.6	19.5	36.0	25.0

자료: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편 자산운용업계를 보면 2008년도 펀드 수탁고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와 파생상품으로의 지속적인 자금유입으로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한 347.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형의 경우 간접투자 문화 정착,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개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 국내외 금융기관간 M&A 증가 등으로 주식형 펀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형의 경우는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형 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시중 유동자금의 단기적인 투자처인 MMF의 경우 대통령선거, 총선, 주식시장 변동성 등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펀드유형별 수탁고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e)	2008년(e)
주식형	21.4	17.1	34.6	55.4	115.7	174.3
채권형	81.5	101.8	85.5	89.5	74.5	65.0
MMF	42.1	59.8	64.8	57.2	47.0	45.0
기타	-	8.2	19.4	32.5	49.1	63.6
합계	145.0	187.0	204.3	234.6	286.4	347.9

자료: 자산운용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 보 험

전반적으로 2008년 보험업계의 총 수입보험료는 120조원 가량으로 9.7% 성장해 2007년도의 성장률 13.1% 보다 3.4%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상GDP 성장률 7.3%를 초과하고 4년 연속 보험료 침투도(보험료/경상GDP)가 상승해 12.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보험료도 244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8.9%로 둔화되는 반면, 손해보험은 11.3%로 4년 연속 10%대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생손보 전체 추이 및 전망

구 분	2006년	2007년(e)	2008년(e)
총보험료(조원)	96.1	108.7	119.2
증가율(%)	10.2	13.1	9.7
보험총자산(조원)	330.1	380.7	428.2
증가율(%)	14.4	15.3	12.5

1) 생명보험

2008년에는 고령화 관련수요 기반이 양호한 성장을 유지하는 반면, 변액보험이 주가상승세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영업이익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자산규모 증가

〈표 14〉 생명보험 추이 및 전망

		2006년	2007년(e)	2008년(e)
수입보험료	개인보험료(조원)	59.9	68.1	74.5
	증가율(%)	9.4	13.7	9.4
	총수입보험료(조원)	66.5	75.0	81.7
	증가율(%)	8.1	12.8	8.9
총자산		273.1	314.2	352.3

자료: 보험개발원

와 금리상승추세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해 수익성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보험은 내수경기 회복, 변액보험 및 연금보험 주도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손해보험

2008년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위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손해보험의 경우 내수경기 회복, 장기손해보험의 호조세 및 자동차보험의 영업실적 개선 추세 지속, 투자영업이익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등에 힘입어 신시장 창출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표 15〉 손해보험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06년	2007년(e)	2008년(e)
원수보험료	자동차	9.6	10.8	11.2
	장기	13.7	16.4	19.3
	일반손보	4.7	4.8	5.2
	전체	29.6	33.7	37.5
	증가율	15.0	13.9	11.3
총 자산		57.0	66.5	75.9

5. 신용카드

2008년도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은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이 4.5%로 전망됨에 따라 2007년도 보다 5.2% 증가한 41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분이 신용카드 대체 지급결제수단의 성장에 의해 일정부분 상쇄되고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한 각 사의 카드대출서비스 강화로 현금서비스 이용액 감소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사와 전업계 카드사가 제휴를 통해 고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앞세운 'CMA체크카드'가 출시되고 증권사 CMA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신용카드시장 잠식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상향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유인이 축소되는 반면 현금사용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용카드사간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로 금융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한 시장 확대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표 16〉 신용카드 이용액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e)	2008년(e)
신용판매	241.1	230.2	258.6	276.8	303.1	324.7
증가율	-9.1	-4.5	12.3	7.0	9.5	7.1
현금서비스	239.5	127.6	105.2	91.6	88.7	87.4
증가율	-33.1	-46.7	-17.5	-12.9	-3.2	-1.5
전체	480.5	357.8	363.8	368.4	391.8	412.0
증가율	-22.9	-25.5	1.5	1.3	6.4	5.2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참 고 문 헌

보험개발원,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7년 11월 20일

삼성금융연구소, “2008년 금융환경 전망”, 2007년 11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년 금융산업 전망”, 2007년 8월

한국금융연구원, “2007년 금융산업 분석과 2008년 전망”, 2007년 11월